

# 국가적 차원의 방재활동에 총력경주할 터



이 상 규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다사다난했던 1987년이 가고 희망찬 198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건대 우리는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국가발전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장정을 향한 과정에서 약간의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안정속의 개혁을 택했으며 이에따라 우리손으로 뽑은 새대통령에 의한 새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경제쪽에서는 풍수재를 비롯한 자연재해와 노사분규로 한때 어려운 국면을 맞기도 했지만 팔목할 만한 수출신장률을 바탕으로 전년에 이어 또다시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협회로서는 지난 11월말 현재 대상특수건물이 드디어 3만건을 넘어섰으며 보험가입률은 8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수재 등 자연재해, 화재,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특수건물의 피해규모가 1천 1백 89건에 지급보험금이 1백 35억원에 달해 손해율은 무려 56%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는 부설 방재시험소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 약 2억원을 투자, 건축구조부재의 내화도시험용 보·바닥가열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관계규정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인정 및 인증업무에 착수하는 등 국가 방재사업의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지난 11월에는 동양나일론 안양공장에서 생산되는스완카페트 6종에 대한 인증시험을 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험소의 인증마크인 'FILK'를 부여한 바 있으며 내무부로부터는 방화제품의 성능시험에 관한 공인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명실공히 국내 유일의 전문방재시험기관으로서의 제면모를 갖추며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전 인류의 축제인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되는 등 우리민족으로서선 선진국으로 웅비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와같이 국가적 운명이 걸린 중대한 시기일수록 무엇보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안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특히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예상되는 북괴의 올림픽 방해테러와 화재, 그리고 자연재해 등 여러가지 위협과 위험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국가적 대사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재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해를 맞아 저희 협회 임·직원 일동은 특수건물을 비롯한 각종 올림픽 시설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실시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재해방지 노력과 방재활동에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저희 협회는 이밖에도 방재시험소의 기능제고를 위해 시설의 과학화 및 국제화를 위한 투자를 계속하는 한편 견제성능시험의 인증 및 선박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공인을 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방화제품의 성능시험 및 인증업무와 의뢰시험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협회업무에 대해 끊임없이 성원해주신 관계기관, 사원사, 특수건물 소유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새해에도 안전점검 및 관계보험업무에 대해 더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1988년 새해 아침

이상규